

부활절 세 번째 주일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3RD SUNDAY OF EASTER

주후 2020년 4월 26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35 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새 298)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17 번 시편(Psalm) 65 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555 장 “세번 아멘”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문일호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Leading 히(Hebrews) 7:11-25 고민영 집사

설 교 Sermon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김일선 목사
(Jesus Became The Guarantee of A Better Covenant)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특송: 윤홍준 집사, 반주: 고혜정 집사) 다같이

*송 영 Doxology 353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새 317)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340 장 “구주 예수 의지함아” (새 542)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각자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면서도,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책망받았던

‘사데 교회’와 같았고,

성령님을 갈망하며 성령님과 동행하기 원한다고 하면서도,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라고 책망받았던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올바른 신앙과 너무 달랐고,

너무 쉽게 죄의 유혹에 흔들리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여전히 우리 안에 가득한 죄악과 허물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하여, 믿음과 삶이 하나되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 3:1, 계 3:16)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한글개역 히7:22)

“Because of this oath, Jesus has become the guarantee of a better covenant.”

(NIV Hebrews 7:22)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4/26 (주일)	4/27 (월)	4/28 (화)	4/29 (수)	4/30 (목)	5/1 (금)	5/2 (토)
	민4	민5	민6	민7	민8	민9	민10
본문	시38	시39	시40,41	시42,43	시44	시45	시46,47
	아2	아3	아4	아5	아6	아7	아8
	히2	히3	히4	히5	히6	히7	히8

수/요/ 성/경/공/부

수요 성경공부 (4/29수 오후7:30) “은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민12:1-16)

지난 주일(4/19) 말씀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히 7:1-10)

성경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평화’를 뜻하는 이름을 가진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은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히5:6,5:10, 6:20, 7:1,7:6) 외에 창세기 14장과 시편 110편에도 등장하는데, 성경은 그를, 1)살렘 왕(평화의 왕)이며, 2)떡과 포도주(성례전)을 상징하는 인물이며, 3)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중보자)이며, 4)아브라함을 축복한 인물이며, 5)아브라함의 드린 십일조를 받았던 인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예표(Typology)하는 인물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왜 갑자기 멜기세덱을 언급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멜기세덱을 통해,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멜기세덱처럼 1)예수님께서서는 먼저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시며(히7:1,10), 2)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시며(히7:6), 3)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시는 분(히7:2,4,5,6,9)이시기 때문입니다.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타인(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자”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도 멜기세덱처럼, 복을 빌어주는 사람으로서, 주를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 살아갈 때, 이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평화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진정 타인을 위한 그리스도인(Being for others)으로서, 복의 근원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